오월광주 '기억'과 12·3 계엄 '현재' 시대 예술로 공명

2025 민주인권평화전 '공명-기억과 연결된 현재'

8월1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민주항쟁·시위 현장 누빈 노래
시대 잇는 미술·음악 아카이브
사운드·미디어아트 5점 선봬
"예술로 표현한 참여의식 제고"

국가 폭력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45년 전 광주의 '기억'과 또다시 계엄의 소용돌이가 재현된 2024년 12월의 '현재'가 공명한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역사적 사건과 시민의 목소리를 예술로 담아낸 공간이 마련됐다. 오는 8월1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제1·2전시실에서 열리는 2025 민주인권평화전 '공명-기억과 연결된 현재' 전시다.

이번 전시는 두 번의 계엄(1980년, 2024년)을 중심으로 인간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 합리와 희망의 공존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음악을 소재로 한 아카이브와 권혜원, 성기완, 신도원, 양민하, 임용현 등 5명의 작가가 참여한 사운드·미디어아트 작품들이 전시 공간을 누빈다.

전시 제목에서 '기억'은 1980년 5월, '현재'는 지난해 계엄 사태를 의미한다. 핵심 주제는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에서 발언한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라는 질문에서 영감을 얻었다.

전시 현장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다채로운 음악 아카이브다. 아카이브전은 탄압과 통제가 예술 활동을 침범했던 1980년대와 이러한 무력이 재생되는 듯했던 2024년과의 연결을 음악으로 조명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 '오월의 노래', '광주출전가', '그날이 오면' 등 당시 검열 대상이었던 노래를 포함해 20여곡이 플레이리스트로 구성돼 전시장 곳곳에 울려 퍼진다. 이를 통한 음악의 기억은 시공간을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람객의 정서적 참여를 유도한다.

누구나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작품들도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권혜원 작가의 '바리케이드에서 만나요'는 19세기 파리에서 시작된 바리케이드의 의미를 현대 시위 현장과 연결해 저항과 연대의 정서를 영상과 사운드로 구현한 작품이다.

전시 '공명-기억과 연결된 현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카이브 자료들.

성기완 작가의 'HLKG518 여기는 라디오 광주'는 1980년 5월18일 광주에서 시작해 미래로 전파를 쏘는 가상의 디지털 라디오라는 설정을 담았다. 역사와 현재의 메시지를 연결하는 라디오 설치작품으로 관객들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시간의 간극을 넘는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

신도원 작가의 작품 '너-기억의 투영'에서 반투명 스크린에 투사되는 영상과 음향은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진다. 관객 스스로가 해석의 주체가 돼 기억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체험에 몰입할 수 있는 연출이 돋보인다.

4m 높이의 목재 프레임으로 세워진 대형 인터랙티브 설치작품도 눈길을 끈다. 임용현 작가의 '발화의 등대'는 관객의 목소리를 감지해 빛으로 반응한다. 등대 오른편에 자리한 대형 시계는 목소리에 따라 과거로 역행하기도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기도 한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일굴 수 있는 건 결국 시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라는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1980년대 광주와 2024년의 뉴스를 학습한 인공지능(AI)이 생성해 낸 텍스트와 이미지로 구성된 설치작품도 만날 수 있다. 양민하 작가의 '그대와 그대의 대화'는 기계가 재현한 인간의 기억을 통해, 감정과 서사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시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시위 현장을 재현한 전시 후반부 공간에서는 민중가요, 개사곡, 케이팝, 클래식까지 다양한 장르가 혼재된 시민들의 음악 문화를 보여준다. 현장의 시민들이 수용자로서 음악을 받아들이는 단방향 문화 소비자에서, 재해석의 주체로 격상돼 새로운 창작자로 변화하게 된 현상을 조명한 공간이다.

윤익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는 음악과 미술을 통해 예술이 가진 보편성의 가치를 재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사회적 발언과 참여의식을 경험할 기회"라며 "5·18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이해 광주시민들과 광주를 찾는 국내외 방문자들이 우리 시대의 아픔과 이를 극복한 오월정신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영유아를 위한 공연 2편을 다음달 9~11일 어린이극장과 야외 광장에서 선보인다. 사진은 감각형 무용 퍼포먼스 '봄·여름·가을·겨울 슴숨슘'을 선보이는 창작팀 '온몸'의 공연 현장. ACC 제공

"ACC서 영유아 위한 놀라운 경험 만들고 가세요"

'더 어린 관객을 위한 극장' 선봬
내달 9~11일 어린이극장·야외광장
국립극단과 공동 제작한 신작 2편

그간 공연을 관람할 수 없었던 연령대인 영유아들을 위한 무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일원에서 펼쳐진다.

27일 ACC에 따르면 어린이극장과 야외 광장에서 다음달 9~11일 ACC 영유아 공연 2편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더 어린 관객을 위한 극장' 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3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창작 공연과 워크숍으로 아이에게 첫 극장 경험을 선사하고 생애주기별 공연 향유의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최초의 국립 어린이극장을 갖춘 ACC는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국립극단과 함께 신작 2편을 공동 제작해 무대에 올린다.

이번에 선보이는 공연은 △감각형 무용 퍼포먼스 '봄·여름·가을·겨울 슴숨슘' △임신부, 영유아가 함께 교감하는 연극 '흔들흔들 우주'다. 먼저 어린이문화원 앞 광장에서 진행되는 '봄·여름·가을·겨울 슴숨슘'은 자연의 소리와 리듬, 동식물의 움직임,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의 감각을 무용 퍼포먼스와 축제 형식으로 창작한 공연이다. 공연명 중 '슴(心)'은 마음의 숨결을 뜻하고, '숨'은 생명의 숨소리를, '슘'은 성장의 몸짓을 의미한다. 공연을 통해 '숨을 쉰다'는 본질적인 감각을 아이에게 전달하고, 이는 곧 자연 속의 생명과 성장의 몸짓으로 이어짐을 표현한다.

실내 어린이극장에서 진행되는 '흔들흔들 우주'는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을 예술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드넓은 우주에서 이루는 두 사람만의 여정'을 주제로 무대 위에서 임신부와 영유아 관객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함께 관극 경험을 나눔으로써 새로운 탄생이라는 한 편의 세계를 그려낸다.

'봄·여름·가을·겨울 슴숨슘'은 18~36개월 이하의 영유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흔들흔들 우주'는 임신부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보호자가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예매는 ACC 누리집(www.acc.go.kr)이나 전화(1899-5566)로 하면 되고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다. **박찬 기자**

5월의 설렘을 클래식 앙상블로 만끽해 보자

'Romance of May'
광주시향, 체임버 시리즈 세 번째
내달 16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의 체임버 시리즈가 세 번째 무대로 찾아온다. 'Romance of May'라는 주제로 다음달 16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광주시향의 바이올린 수석 박신영, 비올라 차석 정수지, 클라리넷 곽지헌, 피아노 김정은이 나서 5월의 낭만을 담아낸 서정적이고도 깊은 감동을 자아낼 전망이다.

공연의 문은 브람스의 '가슴 깊이 간직한 동경'으로 연다. 브람스의 원숙한 시기에 쓰인 이 곡은 인간적 감정과 음악적 고요함이 어우러진 서정적인 명곡으로 알려졌다. 비올라와 성악, 피아노를 위한 작품이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비올라, 클라리넷, 피아노 편성으로 연주된다.

이어 브루흐의 '여덟 개의 소품 중 2번, 5번, 6번 그리고 7번'이 연주된다. 이 작품은 브루흐가 노년에 클라리넷 연주자인 아들과 함께 연주하기 위해 작곡한 실내악 모음곡으로 시적인 단편처럼 독립적인 감성과 색채를 지닌 곡들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공연 후반부는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비올라,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으로 시작한다. 곡들은 작곡가의 무대음악, 영화음악, 발레음악 등에서 발췌돼 그의 제자로 알려진 레프 아툴린이 실내악 편성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리듬감 있는 멜로디가 관객들에게 생동감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연주회의 마지막은 브루흐의 '이중 협주곡 E단조'가 장식한다. 총 세 악장으로 구성돼 바이올린과 비올라, 피아노로 연주된다. 브루흐 후기에 작곡된 낭만주의 협주곡으로, 실내악의 섬세함과 협주곡 특유의 극적인 전개가 어우러진 멋진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향 관계자는 "낭만적인 분위기와 섬세한 앙상블이 어우러진 이번 무대에서 클래식이 전하는 5월의 설렘을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향 체임버 시리즈 Ⅲ 'Romance of May'는 광주시향 누리집과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입장권은 전석 1만원이며 초등학생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다. **박찬 기자**

스티브 캐링턴의 소울과 열정으로 '5·18 광주의 밤' 뒤덮는다

광주 동구 아트스페이스 흥학관
내달 18일 스티브 캐링턴 내한공연

'재즈의 거장'으로 알려진 스티브 캐링턴이 45주년 5·18 당일 광주를 찾아 열정의 무대를 선사한다.

스티브 캐링턴의 내한공연이 다음달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광역시 동구 아트스테이스 흥학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재즈의 본고장인 뉴욕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세계적인 테너 색소폰 연주자 스티브 캐링턴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스티브 캐링턴은 강렬한 톤과 깊이 있는 즉흥적 표현력으로 재즈씬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비밥 스타일과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롭게 결합해 전통과 혁신을 넘나드는 연주자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뉴욕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빌리 애드워드(베이스)와 김민찬(드럼)이 무대에 올라 세계 최고 수준의 정통 하드밥 연주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재즈는 흑인 노예들의 투쟁과 혁신적인 실험정신에서 탄생한 음악 장르로, 그 정신이 광주의 민주화운동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번 공연이 5월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점은 그 의미를 더욱 뜻깊게 만든다.

공연장인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은 광주광역시의 구시청사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일제강점기 청년들이 문화예술과 교육을 통해 자강과 독립의 꿈을 키우던 옛 흥학관 터에 자리 잡아 역사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박찬 기자**